

전북 토탈관광시스템 가동, 관광붐 일 듯

'전북투어패스' 발매 시작... 올해 대규모 국제행사 잇따라 시너지 창출 기대대

전북 도내 14개 시·군에 분포돼 있는 유구한 전통문화유산은 물론 자연 생태유산 등을 손쉽게 둘러볼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가 발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민선6기 전북도정이 도민의 먹거리산업으로 키우려는 이른바 '한국체합 1번지 전라북도'의 토탈관광시스템 구축이 현실화 됐다.

'전북투어패스'는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관광객 수와 도내 일부 특정 관광지에 편중된 관광객 몰림 현상을 극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도민들에게 고루 공유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민선 6기 전북도정 핵심시책 중 하나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사업이다.

전북도는 특히 올해 FIFA U20 월드컵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연

계하고 전북 방문의 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이어서 이번 '전북투어패스' 발매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투어패스'의 완성을 위해 전북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전주시와 완주군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자유관광시설 가입과 특별한 인기 관광지를 확대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특히 각 시·군 대표관광지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전북을 하나의 단일 관광지화 해 한 정외의 카드로 전북 주요 60여개 관광시설과 시·군 내버스, 공연주차장을 최대 무료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1,000여

개의 맛집, 숙박, 공연(체험) 등 편리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자유 이용권형 관광 패스를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주요 관광지만 이용 가능한 관광형에서 도내 전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 농어촌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다양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요까지 감안한 패스를 출시했다.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의 공식 발매를 계기로 올해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 등 30개 실행과제들과 연계해 스타마케팅(홍보대사), 홈페이지, SNS, 레광광고 등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카드 한 장으로 싸고 편리하게 전북여행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북과

충북이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을 착수하고, 공정수화여행단 유치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전북투어패스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한 곳 더, 한번 더, 하루 더, 더더 더 전북관광'이란 비전을 담고 있는 '전북투어패스'가 전국의 관광 모델로 부상하고 있어 전북도의 바깥대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밑거름이 될지 주목된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투어패스가 유럽의 유레일패스처럼 국내 관광객은 물론 전북을 찾는 세계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1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전북투어패스는 물론 관광산업이 더욱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사람찾는 농촌' 실현 위해 58개 사업 2604억원 투자

농촌 관광객 75만명 · 생생마을 120개 추가 육성 등

전북도는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 농촌관광 활성화, 생생마을 육성, 귀농귀촌인 유치, 농식품 6차 산업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58개 사업에 2,60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농촌관광객 75만명 달성, 생생마을 120개 추가 육성, 귀농귀촌인 1만8,000호 유치, 6차산업 사업장 매출액 120억원 달성, 정주여건 개선 사업, 농업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활기찬 농촌! 살맛나는 농촌! 살고픈 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농촌 관광객(66만명)을 유치한 전북도는 올해에는 6개 사업에 154억원을 투자해 전년 대비 14% 증가한 75만명 관광객 유치와 농촌관광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하고 2020년 100만명 시대 달성을 위한 관광객 수용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에 본격 착공해 최소 4개 마을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도민 농촌관광 수용기반 시설 확대로 2020년 농촌관광 100만명 시대를 여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20년 생생마을 1,000개 조성을 위해 이를 지원할 융합행정추진체계를 구축 중인 '생생마을만들기'를 올해 도정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북도가 지난 2년 동안 전국 최초

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통합 관리, 부시간 협업 확대, 유사, 중복,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구축한 마을만들기 융합행정 추진체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돼 생생마을만들기 정책 성과가 쏟아져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귀농귀촌 준비에서부터 안정적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 실행, 정착단계에 16개 사업에 510억원을 투자해 도시민 1만8,000호, 2만 7,000명 유치를 새로운 농촌 성장 동력을 확보해 농촌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수도권 도시민 상담, 귀농학교 운영 등 9개 사업에 43억원을 지원해, 도시민의 농촌살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농업 농촌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 및 농지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 빈집, 휴경지 정보가 아닌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거 및 농지 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 외에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11개 사업에 156억원을 투자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15개 사업에 1730억원을 투자해 142개 마을 개발, 경지정리 1,261ha, 농로정비 110km를 완료하기로 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도 시군 정책협의회, 군산 개최

전북도는 15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송하진 지사와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시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와 시·군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로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도·시·군 간 협업을 통해 중점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2018년 국가예산 확보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송 지사는 특히 현재 조선업 구조조정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시·군의 일자리사업 발굴에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성공적 토탈관광 시스템 정착을 위해 전북투어패스 카드공개와 체험행사도 이어졌다.

송 지사는 "도와 시·군이 소통하고 협업하여 단합할 때,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며 "삼라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15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2층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장, 군수들이 참석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도민안전실장 주관으로 '증강현실(AR) 게임 관련 안전사고예방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청과 도교육청,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해 '포켓몬 GO' 관련 최신정보를 교환하고 각 기

포켓몬GO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관별 안전사고예방 추진상황 공유, 협업과제 발굴 등 최근 전북도의 '포켓몬GO 안전주의보' 발령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포켓몬GO' 게임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

해 유관기관 간 공고한 협업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포켓몬GO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도내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미얀마 상공회의소 관계자 전북도 방문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양국 뿌리산업분야 협력방안 논의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 초청으로 15일 전북도를 방문한 미얀마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기술원을 내방해 이삼수 원장과 양국의 뿌리산업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기술원과 연합회는 그동안 뿌리기업 미얀마 시장개척단 파견, 업무협약 체결 등 도내 뿌리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미얀마 상공회의소의 전북 방문을 통해 양국 기업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내 뿌리

기업의 미얀마 시장 진출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주한옥마을과 금산사, 무주리조트 등을 방문해 '한국 속의 한국' 전북의 매력을 느끼는 체험활동도 예정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주에 있었던 미얀마 산업부 관계자 방문에 이어 이번 상공회의소의 방문으로 전북도와 미얀마 간 뿌리산업분야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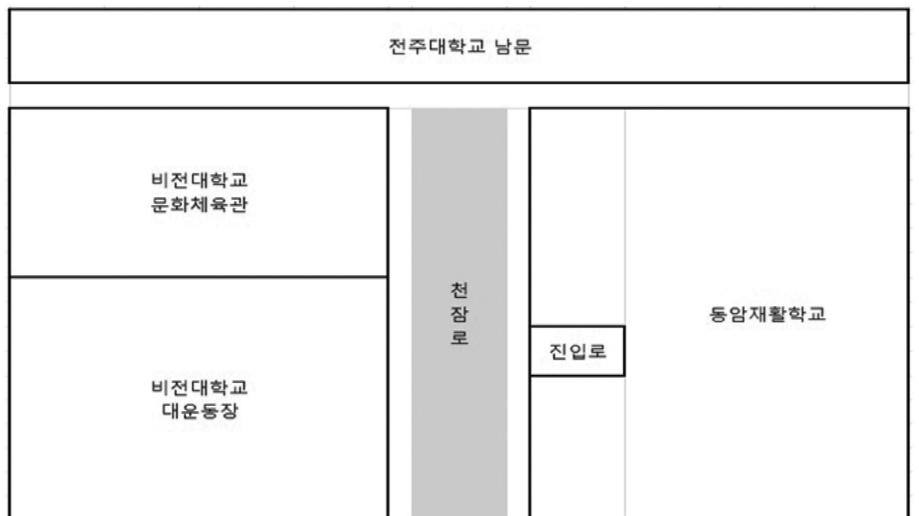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력공급설비 지중화 확정지역 공고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지중화 확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중화 지역 약도

1. 지중화 공사의 목적 : 전주대 간선 위해 설비 해소 및 동암재활학교 진입로 미관 개선
2. 지중화확정지역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천잠로 일원(동암재활학교 진입로)
3.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 2017년 3월~2017년 8월
4. 신·증설 고객의 지중화 시행 기준일 : 공고일부터 30일 초과일
5. 지중화 지역 약도(오른쪽 그림 참조)
6. 지중화 공사의 시행범위
 - 지중화 확정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설비와 도로가 교차하는 1블럭 이내의 지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내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
 - 이면도로가 없는 지선도로(막다른 골목안)인 경우에는 간선도로로부터 50m까지의 가공설비



2017. 2. 16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장

7. 고객 안내사항
 - 지중화 확정지역의 신·증설 고객은 신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전기 공급약관 및 신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지중화 확정지역에서의 신·증설업무에 따라 처리됨을 알립니다.